

조선 후기 영건의궐에 실린 안초공의 기능과 표기법 연구

A Study on Functions and Transcriptions of Anchogongs in Yeonggeonuigwes of Late Joseon Period

이 우 종*

Lee, Woo-Jong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Abstr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anchogongs(按草工) in yeonggeonuigwes(營建儀軌), which were recorded with few details and in unsettled transcriptions. First, the positions and functions of anchogongs in 18th century are analyzed by comparing to anchogongs in more detailed early 19th century yeonggeonuigwes and those in extant buildings. Second, with the result, the historical significances are presumed in changing transcriptions of anchogong terms in those uigwes. In 18th century uigwes, most of anchogongs are functioned as matbo-anchogongs and only four anchogongs in a gate building were used as jongryang-anchogongs. It is mainly because the sorts of buildings in 18th century yeonggeonuigwes had only several varieties: most of the buildings belonging royal shrines. Transcriptions of anchogong terms had been changed for reflecting functional developments of anchogongs in 18th century. However, reflections were much later than changes of actual functions.

주제어 : 안초공, 영건의궐, 건축용어, 기능, 표기법

Keywords : Anchogongs, Yeonggeonuigwes, Architectural Terms, Functions, Transcriptions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영건의궐과 산릉의궐은 조선 시대 건축의 다양한 면모를 현시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화성성역의궐』 등을 통하여 당시 건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개된 바 있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데에 발맞춰 영건의궐과 산릉의궐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그간 건축사학계에서는 이들 연구를 통하여 조선 시대 관영 건축 공사의 조직의 운영, 당시 건물 주요부의 구성 및 재료, 부재 명칭 등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었고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앞으로 더 세밀한 연구들을 수행할 바탕이 될 것이다.

다만, 의궐의 내용이 비록 세밀하더라도 건축의 세

부와 관련된 정보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화성성역의궐』 처럼 건물의 세부 부재까지 도설로 소개한 의궐은 드물다. 따라서 의궐의 용어가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의궐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로 기록했더라도, 의궐들 사이에서, 심지어 같은 의궐 내에서도 용어에 담긴 의미들이 현재적 시각에서 합치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타 문헌 자료에서도 한국 건축의 세부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소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족하나마 의궐의 건축용어에 나타나는 실마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궁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건의궐에 기재된 안초공 용어의 의미와 사용방식을 연관지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의 안초공 관련 연구에서는 왕실 건축의 안초공이 조선 중기와 후기 사이에 변화한 양상을 밝

* Corresponding Author : leewoojong@gmail.com

이 연구는 201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8 논문

했고¹⁾ 각 시대의 의례에서 안초공 표기법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공포 등 좀더 주목받는 부재들에 비하여 안초공은 그 표기법에 내포된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실제 사용방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고 생각된다.

1-2. 안초공의 사전적 정의

안초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 부재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므로 일별할 필요가 있다. 1955년 국립박물관의 『미술고고학용어집』에서는 按草工을 기둥머리에 얹혀서 주심포를 받든 草刻盤으로 기록하였다.²⁾ 반면 1958년 장기인의 『건축용어집』에서는 按草工을 초엽무늬를 새긴 받침 따위³⁾로 간략하게만 정의하였다. 김동현은 按草工에 대하여 다포계 공포의 주심 위의 공포 내외에 시설된 부재⁴⁾로 주두로부터 하부의 평방을 감싸고 창방 밑선까지 내려붙인 초공⁵⁾이라고 한결 상세한 설명을 더하게 되었다. 이후 장기인은 『건축용어사전』에서 안초공을 按草工이라 쓰고 기둥머리의 내외로 평방에 직교하여 끼워서 공포 등을 받는 부재로 해설하였다. 또한 관련된 표제어로 창방안초공, 도리안초공, 종보안초공 등을 제시하였다.⁶⁾ 장기인의 또 다른 저서 『목조』에서는 안초공을 기둥머리와 평방이음새에 끼워서 평방이음을 보강하고 때로는 주심포의 쇠서 밑까지 올려받치게 되는 재라고 하였다.⁷⁾ 또 보아지와 같이 기둥 머리에 보방향으로 끼어서 창방과 직교되는 재이며 평방의 이음새를 감추고 주두를 고정하며 출목쇠서 밑을 받쳐 포살미의 기울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상술하고 있다.⁸⁾ 근래 널리 통용되는 김왕직의 사전에서는 안초공을 按草工으로 표기하고 창방과 직교하여 기둥머리에서 빠져나와 평방

과 주두 또는 주두와 도리까지 감싼 부재로 정의하였고 주심상에서만 생기며 평방과 주두 등을 일체화시키는 역할과 함께 장식적인 효과도 있으며 사찰 대웅전 등에서는 파련형 안초공 대신에 용을 입체적으로 조각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 용어로는 평주안초공, 고주안초공 등을 열거하였다.⁸⁾

1-3. 의례에 기록된 안초공에 대한 기존 연구

현재 사전적으로 통용되는 안초공의 명칭과 정의는 그간 영건의례의 건축부재에 대한 연구의 진행에 힘입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술고고학용어집』(1955)에서 화성성역의례를 어휘 개념 정의에 활용한 바 있고 장기인은 건축용어사전(1985)에 이어 의례용어연구 수고본(1988)을 작성했다고 한다.⁹⁾ 이후에도 인정전 의례를 이용한 공포 용어 연구¹⁰⁾, 조선후기 영건의례의 부재명칭 변화 연구¹¹⁾ 등이 이어졌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안초공, 고주안초공, 창방안초공 등 의례 용어를 소개했을 뿐 각 단어를 세부 분석하진 않았다.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에 실린 이연노의 분석은 의례에 실린 안초공이 현존 건물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해석한 것이다¹²⁾. 이 용어집의 안초공 표제에서는 우선 각종 의례의 다양한 안초공 표기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화성성역의례』 도설 및 실제 수원화성 팔달문의 부재들을 통하여 해당 의례의 昌防按草工, 宗樑按草工, 道里按草工 등의 용어가 어느 부재인지 해석하고 있다. 즉 창방안초공은 평주 상부에 자리하여 익공이나 헛침차 같은 역할을 한다. 종량안초공은 고주 위에서 종량을 받치는 부재를 칭한 듯한데, 보아지와 유사하지만 보아지가 한쪽 방향을 향하는 반면 안초공은 대칭이라고 분석했다. 또, 도리안초공은 종도리를 받치는 것인데, 동장대 종도리 하단의 운공으로 기재된 부재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연노는 도리안초공과 운공의 예를 들어 의례 기록시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연노의 분석은 이후 2010년 영건의례 연구를 집대성한 『영건의례』의 안초공 항목에도 이어진다. 이에 더하

1)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79, 227쪽에서는 창덕궁 명정전, 명정문, 홍화문 위에 초시적 형상의 안초공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中西章, 『料栱形式からみた朝鮮多包系建築の変遷に関する研究』, 1986.10, 114~117쪽은 안초공이 조선 말에 대형화하여 살미에 닿는 정황을 설명하였다. 안초공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가장 자세한 연구는 정해권, 「17세기 이후 다포계 건축에서 나타나는 안초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를 들 수 있는데,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 궁궐건축의 안초공에 나타나는 차이를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2) 김재원 편저,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 을유문화사, 1955, 547항 및 제537도

3) 按草工은 按草工의 오식으로 추정 (장기인, 『건축용어집』, 영류사, 1958, 152쪽)

4) 김동현, 『한국고건축단장 하』, 통문관, 1977, 162쪽

5)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2005(1), 121쪽

6) 장기인, 『목조』, 보성각, 2005(2), 178~179쪽

7) 장기인, 앞의 책, 2005(2), 244~245쪽

8) 김왕직,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128쪽

9) 김동욱·김경표·이왕기·박명덕, 「조선시대 건축용어 연구-조선 후기 영건의례에서 기록된 부재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권, 3호, 1990, 4쪽

10) 심대섭·주남철, 「인정전 의례에 기록된 공포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6호, 1989, 81~87쪽

11) 김동욱·김경표·이왕기·박명덕, 앞의 글, 1990, 3~12쪽

12)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 2007, 130~131쪽

여 이 책에서는 『의소묘영건청의궐』의 案初工을 시작으로 案草工, 按草工, 眼草工, 按推工 등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각 의궐의 안초공 표기법 변천을 표로 정리하였다. 또 『수은묘영건청의궐』에서 복수의 표기법이 쓰인 점, 두 부재를 연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二立付案草工이라는 명칭 등을 지적하였다.¹³⁾

같은 책에서 김왕직은 의궐을 통한 현재 건축 용어의 정리를 검토하는 관점에서 의궐 건축 용어 표기법을 고찰하면서 안초공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그는 의궐의 용어 전반에 대해서는 1600년대는 하나의 용어에 여러 표기법을 사용하는 등 어휘가 풍부했으며, 1700년대에는 표기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차자(借字) 표기법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궐』 이후 용어가 일정하게 통일되고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1900년대에는 황제국이 되고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용어가 달라졌고 공포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용어들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¹⁴⁾ 안초공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한자 표기 판단이 어려운 사례로 들었는데, 각 표기법의 빈도수가 비슷하고 차이는 임의성이 있으므로 선택이 어렵고, 본의에 기반한 한자만 고집하기도 어렵다고 정리하였다.¹⁵⁾

이보다 앞서, 의궐 건축용어의 차자표기에 대해서는 김연주가 2003년 대표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다만, 그 연구에서 안초공 관련 표기는 다른 표기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언급되었다.¹⁶⁾ 다른 한편으로 이은선은 2005년 의궐 공포부재용어를 자원에 따라 해석하면서 안초공의 의미를 다룬 바 있다. 즉,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정시킨다는 按, 풀잎이 초각되었다는 草가 사용되고, 안초공의 모양이 그자를 뉘어 놓은 모양과 같다는 것이다.¹⁷⁾ 뒤이어 김재웅은 조선시대 건축용어를 차자표기로만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字形과 字義를 통한 문자학적 분석을 내세웠다. 그는 이봉수와 의 공동연구에서는 영건의궐 목부재 용어 용례를 연구하면서 안초공 표기의 시대별 변화를 간략하게만 다루는¹⁸⁾ 한편, 공포와 두공에 대

해서 다루면서 『삼국사기』, 『고려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및 여러 의궐에서 栱과 工을 쓴 표기 사례를 소개하고 또한 공포부재의 세부적 용어표기에 工이 쓰인 사례들도 다루었다.¹⁹⁾ 김재웅의 후속 연구에서는 栱과 工을 포함한 여러 부재명에 대한 자형, 자의 분석이 이어졌다.²⁰⁾

정해권은 안초공 전반에 대한 연구를 행하면서, 의궐의 용례와 관련해서는 『인정전영건도감의궐』(1805)와 『중화전중건도감의궐』(1904)의 도설에 평방같은 짧은 부재와 보아지 같은 부재가 결합된 안초공이 나오는데 사찰 건축의 몇몇 사례에 나타나는 예라고 밝혔다. 또 1649년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궐에서 “초공(草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지적하였고, 안초공이라는 부재가 18세기 익공계 건물에서 사용되고, 여러 위치에서 보강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²¹⁾

1-4. 기존 연구 정리와 본 연구의 방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이래 최근까지 안초공의 사전적 정의들에서는 공포 및 주두와의 관계가 강조된 것이 많다. 이는 현재 안초공의 사전적 정의가 주로 조선 후기 창방안초공에 근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궐에서도리, 종량, 고주에 걸구된 부재에도 안초공이라는 이름이 쓰였다는 것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고, 이들은 사진의 관련 표제어로도 올라 있다. 또한 의궐에서 특수한 형태의 안초공, 다포계만이 아닌 익공계 건물에 쓰인 안초공을 찾아낸 연구도 있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18세기 의궐에 다양한 표기로 기재된 안초공이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밝히진 않았다.

2) 의궐 용어에는 다양한 차자표기가 쓰인 것으로 보이며 안초공의 표기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만약 이은선, 김재웅과 같이 이들 글자의 뜻에 의미를 두고 해석한다면, 표기법 변화가 안초공 형태, 사용법의 실제 상황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왕직의 지적대로 안초공은 다양한 의궐 표기 중 특정 표기를 대표로 정하기 어렵다. 최근 통용되는 표기만 해석한 이은선의 작업은 이 점을 간과했다. 그리고 김재웅은 안초공에 대한 심화 분석을 시행하진 않았다.

이상을 참조하여 다음 장부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13) 영건의궐연구회, 『영건의궐』, 동녘, 2010, 685~688쪽

14) 영건의궐연구회, 앞의 책, 2010, 148쪽

15) 영건의궐연구회, 앞의 책, 2010, 657~658, 668~669쪽

16) 김연주, 「영건의궐류의 차자 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3·36쪽

17) 이은선, 「한국전통건축 공포부재 용어의 어원·자원에 따른 어의 해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4~35쪽

18) 김재웅·이봉수, 「영건의궐에 실린 목부재용어의 용례와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 5호, 2008, 73·81·89·90쪽

19) 김재웅·이봉수, 앞의 글, 2008, 79~80·90쪽

20) 김재웅, 「영건의궐의 목부재 용어에 관한 문자학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18권, 1호, 2009, 67~89쪽

21) 정해권, 앞의 글, 2009, 19~21·66~69쪽

10 논문

영건의례 안초공 용어를 분석하려 한다. 첫째, 안초공 또는 이와 유사하게 O초공으로 표기된 용어들을 이들과 병기된 같은 건물의 부재들과 더불어 분석하여 각 의례의 안초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부재들이 사용된 양상을 추정한다. 둘째, 표기법에 사용된 각 한자가 借字일 경우 가능한 뜻과 字義를 따랐을 경우 가능한 뜻을 모두 생각해 보려 한다.

2. 영건의례의 안초공 사용방식 검토

2-1. 19세기 이후 의례의 안초공 사용방식과 용어
19세기 이후의 의례에 등장하는 주요 궁궐 건축물들은 현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우리에게 형태가 알려진 것들이 많다. 또한 19세기 초 의례인 『화성성역의례』(1801)의 “昌防按草工”, “宗樑按草工”, “道里按草工”과 『인정전영건도감의례』(1805)의 “高柱按草工”은 인접부재명을 병기하여 각각의 사용부위와 기능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는 새로운 표기법이였다. 따라서 이들 안초공의 사용방식과 의례에 기재된 방식을 검토해보면 18세기 의례의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열거한 네 가지 안초공 용어를 각 부위에 결구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그 양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 창방안초공은 기둥 위에서 창방과 같은 높이에 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주안초공은 안초공 부재 아래에 결구되는 인접부재인 고주의 명칭을 붙였다. 종량안초공과 도리안초공은 안초공이 직접 지지하는 부재 명칭을 붙였다.

구조적 기능의 측면으로 본다면 종량안초공과 도리안초공은 당연히 종량과 도리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창방안초공의 경우 팔달문, 장안문 등에서는 이미 19세기 이후의 사례들과 같이 그 위의 평방과 공포의 안정에까지 관여한다.²²⁾ 하지만, 윤장섭이 초시적 사례로 거론하고 정해권이 초공형으로 분류한 17세기 초 창경궁 명정전 등의 조선 중기 사례는 평방 바로 밑까지만 닿고 있으므로, 최초의 발생 목적은 주로 창방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²³⁾ 이와 달리, 고주안초공의 경우는 안초공을 기둥머리에 끼우는 것만으로 고주가 더 단단히 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둥의 안정은 기둥에 종횡으로 연결되는 수평재

들에 크게 의지한다. 고주안초공은 주로 내외진 측면 중앙의 고주 위에서 양쪽으로 마주 걸리는 부재들, 즉 맞보, 외기도리, 뜯창방 등을 받치고 붙들어 안정시켜 결국 고주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즉 이들 19세기 초 안초공 용어의 조어 방식은 설치위치와 기여하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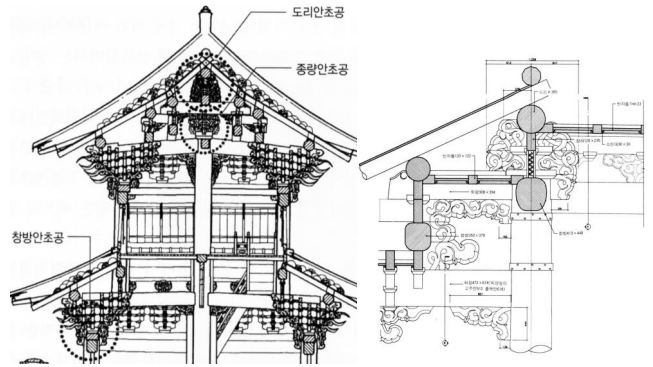


그림 1 수원화성 팔달문 각부

그림 2 창덕궁 인정전 상층 안초공(경기문화재단, 2007) 고주안초공(문화재청,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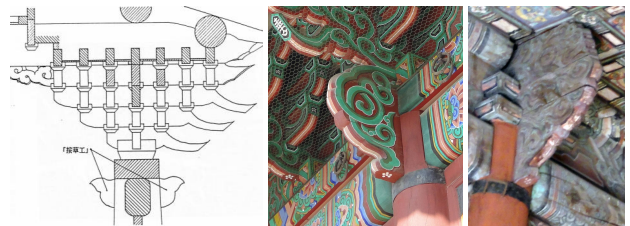


그림 3 창경궁 명정전

그림 4 덕수궁 중화전

창방안초공(中西章, 1986) 창방안초공(좌) 및 고주안초공(우)

흥미로운 점은 『화성성역의례』 이후의 의례에서는 창방안초공, 종량안초공, 도리안초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겨우 몇 년 후의 『인정전영건도감의례』에서는 창방안초공을 안초공으로 통칭하고 고주안초공만을 구분해서 적었다. 고주안초공 역시 『인정전영건도감의례』를 참고해서 작성했을 『인정전중수도감의례』(1857)에 다시 등장할 뿐이다.

이는 의례의 용어가 각 공역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화성성역의례』의 경우, 팔달문, 장안문 등 한 건물의 여러 위치에 다른 형태의 안초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적었다. 그러나, 화서문과 창룡문에서는 종보 위의 종도리 지지부재와 총량 상부의 외기도리 지지부재의 형태가 유사했기 때문에 모두 대공으로 통칭했다.²⁴⁾ 1805년과 1857년의 인정전에서 창방안초공은 하층, 상층에 각 18개씩 필요한 반면 고주안초공은 상층

22) 정연상, 『맞춤과 이음』, 고려, 2010, 146쪽은 안초공으로 상부 주두를 고정하는 방식이 축을 쓰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23) 정해권, 앞의 글, 2009, 26~32쪽에는 구조적 안정에 기여하는 안초공의 기능을 헛첨차와 비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24) 영건의례연구회, 앞의 책, 2010, 705쪽

내진 양 측면에 단 2개가 들어갈 뿐이므로²⁵⁾ 고주안초공만 따로 적으면 되었던 것이다. 그 외의 의례에서도 수량이 적고 유사한 형태만 쓰이거나, 종류나 모양이 달라도 서로 다른 건물에 들어갈 것이라면 안초공이라는 통칭만 써도 기록에 지장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통칭할 만한 유사한 형태에 대한 기준은 현재 건축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보다 훨씬 유연했을 것이다. 각 부재의 최종적인 가공은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공역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크기와 품질의 재료를 수급해주면 될 뿐, 맞춤과 이음을 위한 세부 가공은 현장 장인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중화전영건도감의례』(1904)는 인정전의 경우와 달리, 고주에 쓸 것을 구분하지 않고 按推工을 하층에 18좌, 상층에 20좌 쓴다고 적었다.²⁶⁾ 『경운궁중건도감의례』(1906)에서 단층으로 바뀐 중화전의 척량에서도 역시 다른 구분 없이 按推工 20좌만 적었다.²⁷⁾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보면, 인정전의 척량에서는 두 의례 모두 상층(창방)안초공과 고주안초공의 길이와 두께는 같지만 높이는 안초공이 3척5촌, 고주안초공이 3척7촌으로 2촌 차이난다.²⁸⁾ 즉, 재료의 크기가 약간이나마 다르게 책정되었으므로 인정전에서는 안초공과 고주안초공을 구분해서 적은 것이다. 반면, 중화전의 척량에서는 이 약간의 차이를 없애는 ‘표준화’를 감행했기 때문에 ‘高柱按推工’을 따로 적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두 중화전척량에서 按推工을 이루는 상하 부재를 初作, 二作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크기를 적어 준 점은 19세기의 인정전 의례들보다 상세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²⁹⁾ 다만 중화전척량의 ‘표준화’는 실제 ‘高柱按推工’ 부재의 준비와 가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문서상의 시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현존 중화전의 고주안초공은 결구는 물론 부재 높이 등의 크기 또한 창방안초공과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2. 17세기 “O초공” 용어와 안초공 연관성 분석

19세기 이전엔 안초공을 세분한 표기방식은 보이지 않으며 18세기 초반 이전으로는 안초공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불분명하다. 정해권은 『인조장릉산릉도감의례』(1649)의 草工을 안초공과 관련한 의례 용어의 최초 사례로 언급하고 있으나³⁰⁾ 함께 열거된 부재로 볼 때 안초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草工은 사용 위치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수량은 기록되어 이로부터 유추할 여지가 있다. 초공은 가정자각(假丁字閣) 부재인데 8개의 재료로 材木 一條를 쓴다. 이 가정자각은 어칸(於間), 협간(挾間)이 있고, 기둥(柱) 8개, 대들보(大楹)와 판대공 4개, 동자주 8개로 구성되며 단청을 하지 않았다.³¹⁾ 즉 3×1칸 맞배 5량가로 꾸밈새는 없는 임시건물이었다. 따라서 이 草工은 안초공이라기보다는 기둥, 동자주 등에 결구될 익공형 부재였다고 생각된다.

사실, 안초공처럼 “O초공”형태를 갖춘 최초의 어휘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산릉의례인 『의인왕후산릉도감의례』(1601)의 “花草工”이 있다. 이 의례엔 靈幄殿, 丁字閣, 齋室의 도형과 花草工, 草大工, 沙乙味를 刻出할 本草에 쓸 유둔(油菴)의 수량이 언급된다.³²⁾ 화초공, 초대공, 살미는 상기한 건물의 부재로 생각되나 해당 의례 造成所 중 각 건물 내용에는 기둥, 도리, 보 등 큰 재료 외에는 구분하여 수량을 적지 않았다. 열거된 부재명 중 草大工은 파련대공, 沙乙味는 살미지만 17세기 초에는 다포계 외의 공포에서도 살미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다. 花草工은 독자적 명칭일 수도 있으나, 1512년 『중종실록』의 花栱, 草栱³³⁾의 통칭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현재의 공포 전반, 또는 세부적으로는 익공, 운공, 안초공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들을 포괄하는 이름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17세기의 화초공, 초공 등의 용어는 어느 부재인지 불분명하거나 안초공과 무관하다. 즉, 정해권의 주장과 달리 분명한 안초공 용어는 18세기 중반의 영건의례부터 등장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3. 18세기 의례의 왕실 사묘 정우의 안초공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연구들은 안초공을 지칭하는 어휘가 의례에 언제 등장했는지에 집중해 있을 뿐, 18세기 의례들에서 이 어휘들이 어느 부위를 뜻하는지

25) 『인정전영건도감의례』와 『인정전중수도감의례』 殿宇尺量

26) 『중화전영건도감의례』, 中和殿尺量 참조

27) 『경운궁중건도감의례』, 中和殿尺量 참조

28) 『인정전영건도감의례』와 『인정전중수도감의례』 殿宇尺量

29) 『중화전영건도감의례』, 中和殿尺量과 『경운궁중건도감의례』, 中和殿尺量 참조

30) 정해권, 앞의 글, 2009, 13쪽. 정해권이 조선 중기 명정전 등의 창방안초공을 “초공형”으로 분류한 것(위의 글 26~32쪽)은 상기한 인조 장릉의 초공을 17세기의 안초공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1) 『인조장릉산릉도감의례』, 조성소 참조

32) 『의인왕후산릉도감의례』, 감결 7월24일

33) 『중종실록』 16권, 중종7년 윤5월 13일 병술. 김재응, 이봉수, 앞의 글에도 조선 초의 사례로 인용된 바 있다.

12 논문

규명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의궤에서는 크기와 대략적 형태만 유사하면 구분 없이 안초공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이들 의궤에 기재된 안초공이 속한 건물의 정보, 그리고 앞서 언급한 19세기 의궤 및 현존 건물 사례들을 대조하여, 각 건물에서의 안초공의 결구위치와 용도를 유추하겠다.

선행연구들에서 알려진 대로, 영건의궤에 등장하는 첫 완전한 안초공 어휘는 『의소묘영건청의궤』(1752)의 “案初工”이다. 이 안초공은 해당 의궤의 수본질(手本秩)에 의소묘 정우(正宇)의 부재로 기록되었는데, “草立工” 또는 “初立工”, 그리고 “無立工”과 함께 들어간다.³⁴⁾ 초립공과 무립공은 각각 8개이지만 안초공은 단 2개이다. 정우는 9칸이며 의궤 권말의 도설에 따르면 정면3칸이다. 그리고 기둥(柱) 12개, 종보(從椽) 4개, 합장보(合杖椽, 맞보) 4개, 덧보(假椽, 현재의 틃보)³⁵⁾, 2개, 대들보(大椽) 2개, 그리고 창방(昌方), 장혀(長舌), 도리(道里)가 각 15개이고 대공(大工)4개에 동자주(童子柱)는 6개이다.³⁶⁾ 얼핏 보아서는 3×3칸 건물에 전퇴칸을 구성하기에는 기둥이 모자란 듯하고 각각 8개인 초익공과 몰익공이 들어갈 자리도 혼동되며 안초공의 자리도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의소묘 정우는 소수의 특이사례가 아니며, 이 건물의 부재 수량은 표기법만 달라질 뿐 1764년의 『수은묘영건청의궤』 정우³⁷⁾, 1790년의 『문희묘영건청등록』 정당³⁸⁾에서도 반복된다. 문희묘 정당에서 고주 2개와 평주 10개로 좀더 구분해서 쓴 정도가 다를 뿐이다. 19세기로 넘어가서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1824)의 정당은 규모가 9칸이 아닌 6칸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역시 위에 열거한 기본 재료의 수량은 같다. 그에 더하여 기둥을 고주 2개, 전면주 4개, 간주 2개, 후면주 4개로 더 세분하여³⁹⁾ 구조 이해를 돕는다.

이들 사묘의 정우, 정당들과 용도가 유사하고, 의궤에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부재들로 구성되는 현존 사례로는 칠궁 경내의 몇몇 건물들이 있다⁴⁰⁾. 칠궁 중에

서도 18세기 초창된 대빈궁을 예로 그 구조와 부재 숫자를 앞서의 의궤들과 대조해 보겠다. 우선 이 건물은 3×2칸 맞배집이고 전퇴가 있다. 전후 각각 4개씩의 기둥 사이로 어칸에는 측면 중심보다 앞으로 나온 자리에 세운 고주 2개를 끼고 앞에는 틃보, 뒤에는 대들보가 결구된다. 양 측면에선 벽 중심의 기둥으로 맞보를 받쳤다. 전퇴 안쪽의 고주열에 끼운 창호가 측면과 만나는 곳은 별도의 기둥 없이 측면 안의 문선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맞보 위에는 2개씩의 동자주, 대들보 위에는 고주와 마주보는 1개씩의 동자주가 있고 그들 위에 4개의 종보와 대공이 늘어선다. 여기에 도리, 장혀, 창방(뚝창방)이 좌우3칸의 5량가에 총15개씩 결구된다. 건물 앞뒤에 초익공이 설치되며 앞뒤의 동자주와 고주가 종보를 받치는 부위에 몰익공이 설치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양 측면 중심주 위에 도리방향으로 안초공이 결구되며, 주두와 그 위에 결구된 맞보의 이음매를 감싼다. 이로써 앞서 의궤들에 기록된 모든 부재들과 수량이 맞아들게 된다. 3×2칸 건물을 18세기 의궤에서 9칸, 19세기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에서는 6칸으로 적은 것은 전퇴 고주와 측면 간주가 어긋난 평면 구성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차이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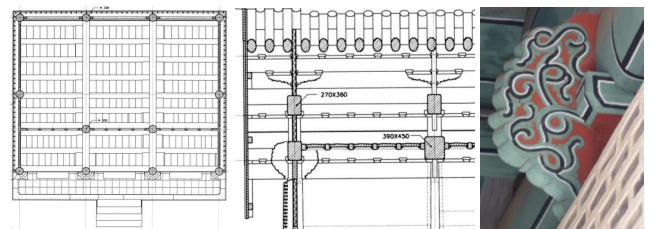


그림 5 대빈궁 평면도 그림 6 대빈궁 횡단면도 그림 7 대빈궁 측면 안초공
(문화재청, 2000) (문화재청, 2000) (문화재청, 2000)

즉 18세기 중, 후반에 안초공을 언급한 영건의궤들에서 다룬 정우, 정당 등 중심건물은 조선 후기의 왕실 사묘 건물의 거의 규격화된 구성을 따랐으며, 이들 의궤에 언급된 단 2개뿐인 안초공은 맞배지붕집 양측벽 중앙기둥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존 왕실 능원 정자각 정청에서도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측면에 결구되어 맞보나 대량, 종량과 이를 받치는 중심 기둥의 결구를 보강하는 안초공이 자주 보인다. 즉, 중심기둥과 보 연결을 보강하는 안초공은 18세기 의궤에서 사묘 정우의 필수적인 부재로 취급된 듯하다.

년 다시 육상궁내로 이봉했다. 경우궁은 본 논문에서 언급한 현사궁 별묘가 순조24년(1824) 12월에 궁호를 받은 것이다. 현재의 경우궁은 1886년 인왕동에 이 건했다가 1908년 육상궁 내로 이봉한 것이다. (문화재청, 『칠궁의 연혁 및 수리공사보고서』, 2000, 15~30쪽)

34) 『의소묘영건청의궤』, 수본질 임신 7월 12일과 수본질 9월

35) 읽는 법은 김연주, 앞의 글, 2003, 26쪽 참조

36) 『의소묘영건청의궤』, 수본질 임신 9월, 正宇九間所入.

37) 『수은묘영건청의궤』, 수본질 갑신 3월, 正宇九間所入

38) 『문희묘영건청등록』, 正堂退并九間新建所入

39)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실입, 正堂六間所入

40) 칠궁은 왕의 친어머니인 후궁들을 봉사한 묘궁이다. 원래 육상궁이었는데 1908년 다른 묘궁을 이봉하면서 육궁이 되고 1929년 하나가 추가되어 칠궁이 되었다. 뒤에 서술할 대빈궁은 1722년 건립했다가 1870년 육상궁 내로 이봉하고, 이후 1887년 옛 터에 환봉했다가 1908

2-4. 18세기 의례 안초공의 여러 용례들

18세기 의례들에 언급된 다른 형태의 건물들에서도 안초공은 기둥 수와 비교할 때 적은 수량만 사용되며 따라서 이들 중에 창방안초공은 없다고 생각된다.

『수은묘영건청의례』(1764)의 환하호조질에는 재실을 철회하여 “二立付案草工” 한 부(部)가 “立工” 2개, “無立工” 8개와 함께 나왔다. 이 의례 수본질에는 재실이 6칸 건물로 나온다. 기둥 12개에 대들보(大樑)와 덧보(假樑)⁴¹⁾, 그리고 그냥 보(樑) 하나씩에 맞보는 무려 6개인데 案初工은 단 하나만 나와서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⁴²⁾ 다만 3×2칸의 내외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건물에서 맞보로 구성된 측벽 또는 대청 쪽에 쓰인 고주안초공이거나 천장이 개방된 부위의 종량안초공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다.

이 재실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다. 재실 입공과 무림공 등 부재 수량이 환하호조질과 수본질에서 같은 것으로 보아 수본질의 案初工 하나도 환하호조질의 二立付案草工 하나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즉 이는 영건의례 중 안초공 하나가 두 장의 부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 기록으로 밝힌 사례이다. 19세기 의례의 사례들은 현존 건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17세기 창경궁 명정전 창방안초공의 사례는 안초공이 원래 판재 한 장뿐인 부재로 시작했을 가능성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수은묘의 이입부안초공은 부재 구성 변화를 반영한 첫 기록인 것이다.

한편, 『경모궁개건도감의례』에는 사묘 건물 맞보의 안초공과 삼문의 종량안초공 사례가 각각 나타난다. 경모궁 정당(正堂)은 20칸 규모이며 의례 권두의 개건도와 정당 부재 수량을 분석하면 5×4칸 평면에 3×2칸 내진의 7랑가 맞배 이익공집으로 보인다.⁴³⁾ 이 건물에 “案草工”은 단 4개 쓰였다. 앞서 사묘 정우들의 예로 보아 이들은 내진과 외진 양측면 중심에 있는 4개의 기둥 위에서 맞보를 잡아주는 안초공일 것이다.

같은 의례의 외삼문은 겨우 3칸 건물인데 기둥 12개에 案草工은 정당과 같은 4개가 들어간다. 문을 달려고 기둥을 3열로 세웠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측면을 온전한 2칸이 아닌 반칸 2개로 취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樑) 4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간격이 좁아 굳이 맞보를 쓰지 않고 중심열 기둥을 가로질러 보를

건 후 그 위에 단보(短樑=종보)를 얹었을 것이다.⁴⁴⁾ 따라서 이 건물의 案草工 4개는 맞보를 보강하는 고주안초공이 아닌, 보 4개 위에서 종보 4개의 가운데를 받치는 종량안초공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량안초공은 앞서 언급한 팔달문 같은 대형 건물의 일부로 쓰인 부재이다. 하지만, 현존 건물 중 단층인 창덕궁 인정문(1745) 종보 아래에도 소위 “가운데 동자주”, 즉 종보 중심 아래에 동자주를 세우고 화반을 결합한 형태로 종량안초공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재가 있다⁴⁵⁾. 따라서 경모궁 외삼문에 종량안초공을 쓴 것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 팔달문, 인정문, 경모궁 외삼문의 용례로 짐작하건데, 종량안초공은 궁궐 건물 내에 중고주를 세웠을 때에, 종도리와 대공, 종보 한가운데를 거쳐 전달된 하중을 중고주까지 직접 전달하고자 설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종량안초공 또는 그 유사 부재와 고주를 민간 건축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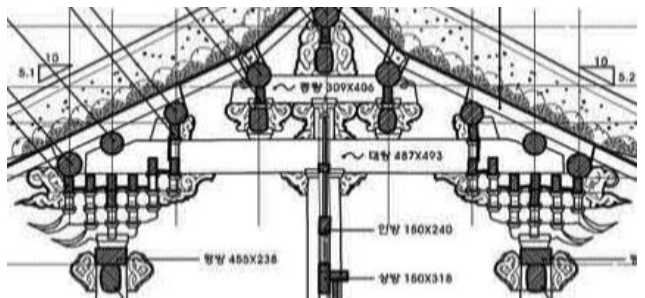


그림 8 인정문 종단면도 부분(문화재청, 2010)

정리하면, 18세기 의례의 안초공은 대부분 맞보, 종량 등의 보와 결구된 보강재로 보인다. 1801년의 『화성성역의례』 이전 의례에 나온 안초공들 중에는 창방안초공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현존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당시 창방안초공이 쓰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접근 가능한 의례에 창방안초공이 쓰일 만한 건물이 없었을 뿐이다. 다만, 18세기에는 안초공 어휘에 내포된 의미에서 창방안초공의 비중이 현재처럼 압도적이진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41) 假樑를 덧보로 읽는 문제는 김연주, 앞의 글, 2003, 26~31쪽 참조
 42) 『수은묘영건청의례』, 還下戶曹秩, 齋室撤毀木物 및 手本秩, 갑신 3월, 齋室六間所入回 참조
 43) 『경모궁개건도감의례』, 改建圖 및 正堂二十間新造所入 참조

44) 『경모궁개건도감의례』, 外三門三間所入.
 45) 인정문은 1744년 10월 소실되어 곧 중간에 착수, 이듬해 3월 완공했다.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88~90 참조. 해당 부재는 같은 책, 188쪽에 “가운데 동자주”라고만 묘사되어 있다.
 46) 사찰 건축인 완주 화암사 우화루는 종도리 선상에 종량과 대량 사이의 대공과 종량 위의 파련대공을 이중으로 설치하였으나, 고주는 중심이 아닌 종도리선상에 배열되었다. 이중 대공에 대해서는 완주군, 『완주 화암사 우화루 해체·수리 보고서』, 2011, 83쪽 참조.

3. 안초공 어휘 표기법의 변화와 의미

3-1. 18세기 표기의 案과 安의 관계

현재 알려진 최초의 안초공 어휘는 『의소묘영건청의례』(1752)의 案初工이며, 이어지는 『수은묘영건청의례』(1764)에서는 二立付案草工, 案草工, 安草工, 案初工이 모두 등장한다. 이후 『경모궁개건도감의례』(1777)와 『문희묘영건청등록』(1790)에선 모두 案草工이다. 19세기 초의 『화성성역의례』(1801), 『인정전영건도감의례』(1805),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례』(1824), 『창경궁영건도감의례』(1834), 『창덕궁영건도감의례』(1834), 『인정전중수도감의례』(1857)는 모두 按草工이 기본이며, 『중화전영건도감의례』(1904), 『경운궁중건도감의례』(1906)에서는 按推工이다.

안초공 용어들은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 나타난 각 표기들의 독음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차자표기로 조어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어로 통용되는 호칭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오직 차자표기만으로 본다면 가장 첫 음인 “안”의 표기법부터 의문이 든다. 18세기에는 案이 주류이고 安이 수은묘의례에 딱 한 번 쓰인다. 19세기 이후 按이 기본이 되었는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安보다 案, 按 등이 대세를 이룬 이유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해당 공역에 종사한 기록자, 그리고 그 기록을 합쳐 의례로 만든 담당자들이 이들 글자에서 독음만이 아닌 어떤 의미를 단독으로, 또는 중의적으로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6세기 이래로 이미 존재하던 초공(草栱, 草工)이라는 어휘 앞에 ‘안’이 붙으면서 특별한 부재의 명칭이 된 것이므로 이를 표기하는 방식과 그 변화를 분석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8세기에 쓰인 案이 만약 발음 위주로 쓰인 것이라면, 우리 고어에서 [안] 발음은 ‘안(內), 안다(抱), 앓다⁴⁷⁾, 아니하다⁴⁸⁾’ 등의 뜻을 가진다. 18세기 의례의 안초공 중 상당수가 소형 사묘건물 측벽 안팎에 걸친 안초공이고, 현존하는 창방안초공들도 외부로 노출된 형태가 기본이므로 ‘안(內)’을 뜻하진 않을 것이다⁴⁹⁾. ‘아니하다’도 안초공의 형태, 역할과 안 어울리고, 이두에서 그런 의미로 [안] 표기를 할 때에는 案보다 간단

한 安을 썼다⁵⁰⁾. 그렇다면 관련 부재를 ‘안(抱)는다’는 뜻이거나 또는 지지하는 부재 아래에 ‘앓았다’는 뜻일 수 있다. 전자는 조선 후기 창방안초공이나 고주안초공, 후자는 조선 중기 창방안초공이나 종량안초공 형태와 어울리므로 한쪽에만 방점을 두긴 곤란하다.

案과 安의 字義 쪽을 살펴보면, 案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밭이 달린 소반, 사발, 안석, 궤안, 책상, 탁자’ 등이다. 安의 대표적인 뜻은 ‘편안히 살다, 익숙해지다. 안정되다, 안정시키다’ 등이다. 용례에 따라 ‘안, 집 안, 앓다’ 등의 뜻도 있다. ‘안정’이란 뜻은 安撫, 安堵=案撫, 案堵 등으로, 安과 案이 공유하고 있다⁵¹⁾. 앞서 열거한 뜻과 안초공의 역할을 결부시켜보면, 안초공은 결구된 부재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받치는’ 기능도 포함된다. ‘안정’은 安이든 案이든 다 쓸 수 있으나, ‘받치는’ 기능은 案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정리해 보면, [안] 발음을 간편하게 쓸 수 있는 安 대신 案을 많이 쓴 것은 안초공이라는 이름에 특정 부재 아래를 ‘받치는’ 역할을 표시하길 원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평방 아래에 한 장의 부재만 앞뒤로 펼쳐진 초기 창방안초공에 어울리는 의미이다.

3-2. 의소묘의례와 수은묘의례의 初와 草의 관계

初와 草는 『의소묘영건청의례』와 『수은묘영건청의례』 사이에서만 혼용된다. 草는 ‘풀’이라는 뜻이 기본이지만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어 ‘처음, 첫째 번’을 뜻하는 初와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⁵²⁾. 다만 이들 의례에서 안초공만이 아니라 입공 부재에서도 草와 初가 혼용되고 있어 그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소묘영건청의례』의 案初工은 출본, 즉 조각, 단청을 위한 본을 뜬 厚油紙 수량을 적을 때에는 草立工, 無立工과 함께 기재된다⁵³⁾. 그러나 正字의 부재 수량을 적을 때에는 初立工, 無立工과 함께 기재되었다⁵⁴⁾. 『수은묘영건청의례』에선, 재실을 철회해서 거둔 목부재(木物) 수량에 立工, 無立工과 함께 二立付案

50) 安은 [안]이라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安徐(안서/안씨, 아서)를 기본으로 하는 일련의 이두 어휘에 쓰인다. 장세경, 앞의 책 참조

5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7』,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245~247쪽,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4』,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157·162·165쪽

5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11』,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859쪽;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2』,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482~483쪽

53) 『의소묘영건청의례』, 수본질, 임신 7월 12일.

54) 『의소묘영건청의례』, 수본질, 임신 9월 일.

47) 남광우, 『고어사전』, 교학사, 1999, 1019~1024쪽

48)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159~160쪽

49) 장기인, 앞의 책, 2005(1), 367쪽은 영건의례에 종종 나오는 용어인 安木을 “반자판의 안쪽에 대는 나무?”라고 추정하여 건축용어에서 安이 안(內)라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草工이 적혔다.⁵⁵⁾ 이후 각종 출본용 油紙 기록에는 草立工, 無立工, 案草工이 경우와 재실용 각각 나온다.⁵⁶⁾ 그런데, 건물 부재 수량은 정우에 草立工, 無立工, 安草工, 재실에 立工, 無立工, 案初工으로 기록됐다.⁵⁷⁾

이상의 내용에서 재미있는 점은 두 의례 모두 초립공 또는 입공을 출본 재료 기록시에는 꼭 草를 넣어 草立工으로 썼다는 점이다. 『의소묘영건청의례』에서 대공, 행공의 본뜨기를 出草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⁵⁸⁾, 草는 草刻, 단청 草本 등 장식의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無立工이 장식 없는 부재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초립공 부재명을 적을 때 경우에 따라 장식을 강조한 草, 또는 결구 위치, 순서를 강조한 初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의례에 실린 기록과 관련된 역할을 맡았을 목수, 화공, 단청장 등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 용어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이를 안초공에 대입하면, 의소묘 정우에서 출본과 부재수량 모두 案初工으로 표기된 것은 안초공이 다른 부재보다 먼저, 즉 아래에 결구되는 것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다. 반면 수은묘의 안초공들은 재실 부재 수량에서 한 번 初로 기록한 것 외에는 모두 草로 표기하였고 이는 이후의 다른 의례까지 이어졌다. 즉, 『수은묘영건청의례』의 안초공 용어 혼란은 안초공의 장식적 성격을 강조하도록 草를 넣은 표기법이 일반화된 전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3. 19세기 案과 按의 전환과 그 의미 해석

19세기 의례에서 案이 按으로 바뀐 과정에는 이들이 음이 같으면서 뜻 또한 통용되는 글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案은 ‘누르다, 억제하다, 의거하다, 조사하다’ 등으로 쓸 수 있는데 이는 按의 대표적인 뜻들과 통한다. 按 역시 案처럼 ‘케안’이란 뜻으로 쓴 용례가 있으며, 두 글자 모두 ‘안정시킨다’는 의미로 安과 통하기도 한다.⁵⁹⁾ 또한 案은 공문서, 계시문, 사건⁶⁰⁾ 등을 뜻하기도 하며, 按은 근거 제시, 또는 안사(按査), 안핵(按覈)⁶¹⁾ 등의 용어에 쓰여 둘 다 영건 및

산릉 실무를 맡은 관리에게 익숙한 글자였을 것이다.

案과 按이 이처럼 의미가 통하지만 『화성성역의례』에서의 안초공 용어 정리 이래로 19세기 이후 의례에서 按이 案을 대체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按이 현장에서의 문서 작성시 쓰기에 더 편한 글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획수는 비슷하지만, 세로쓰기 할 때 案은 한정된 상하 폭 안에 여러 획이 겹치는 반면, 按은 획 구성이 한결 여유 있고 杼변은 흘러쓰기도 편하다. 둘째로는 비록 서로 뜻을 공유하지만 좀더 강조되는 주된 뜻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앞서 1절에 열거한 [안] 발음에 담긴 뜻까지 연결하면, 案은 아래에 ‘앉아서’, ‘받치는’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杼변이 붙은 按은 (손으로) ‘안(抱)고’, ‘잡아누른다’는 의미가 두드러지는 듯하다.

앞서 『수은묘영건청의례』에 등장한 재실의 이입부 안초공은 안초공이 상하 두 장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을 영건의례 중 처음 반영한 용어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받치는’ 기능을 강조한 案이 관례적으로 쓰이다가 1801년의 『화성성역의례』 작성 무렵에 이전의 案과 뜻이 통하면서도 표기하기 쉽고, 안고 눌러서 안정시키는 의미까지 담은 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 부재의 변화상을 표기법이 수십 년 늦게 따라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용방식 및 결구 위치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고 표기법에 많은 변이가 있었던 조선 후기 영건의례의 안초공 용어들에 주목하였다. 우선 19세기 이후 의례의 사용처가 분명한 안초공 사례와 17세기 의례의 안초공인지 모호한 어휘들을 분석했다. 그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18세기 의례에서 안초공이 설치된 건물 관련 내용을 19세기 이후 의례 내용 및 현존 건물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안초공이 건물의 어느 부위에 사용된 것인지를 밝히고 18세기 의례에서 어떤 안초공이 주류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안초공 용어 표기에 쓰인 글자들의 음과 뜻을 분석하여 안초공 사용방식과 표기법 변화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선 기존 연구에서 17세기의 안초공 관련 용어로 지목되었던 『인조장릉산릉도감의례』의 초공은 안초공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18세기 중·후반 영건의례에 실린 안초공은 대다수가 맞보를 보장하는 안초공이었

55) 『수은묘영건청의례』, 환하호조질

56) 『수은묘영건청의례』, 수본질, 갑신 정월 일 및 갑신 이월 일.

57) 『수은묘영건청의례』, 수본질, 갑신 삼월 일.

58) 『의소묘영건청의례』, 수본질, 임신 7월 12일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2004, 245~247쪽;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2001, 157·162·165쪽;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5』,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2, 1187쪽 참조

6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2004, 245쪽

61) 장세경, 앞의 책, 2001, 416쪽

16 논문

고 일부 종량안초공이 포함된 것을 알아냈다. 이는 해당 의뢰의 대부분이 익공계의 사묘 건축을 다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9세기 이후 의뢰에서 안초공의 사용 부위를 명시한 이름을 쓴 것은 한 건물에 두 종류 이상 안초공이 들어가고 준비할 재료 크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의뢰에선 대체로 한 건물에 한 가지 안초공만 쓰였으므로 명칭을 세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안초공 표기의 [안], [초] 표기 글자들은 발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부재 기능을 글자의 뜻에 반영하여 변한 것으로 보인다. 즉 初자를 써서 다른 부재를 아래에서 받치는 기능을 거듭 강조하던 案初工 대신, 草를 넣어 장식적 효과를 좀더 부각시킨 案草工 표기가 1764년 등장하였다. 함께 쓰인 二立付案草工이란 용어는 상하 두 장의 부재로 구성된 조선 후기적인 안초공을 처음 문자로 기록한 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19세기 초 이후 두 장의 부재로 잡아 누르는 기능을 반영한 按을 넣은 按草工 표기가 일반화된다. 다만 기능을 글자의 뜻에 반영하는 시점은 실제 안초공의 변화 시기보다 꽤 늦었다. 심지어 각각의 글자들 사이에도 반영 시점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차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제한한, 용어의 각 글자를 음과 뜻을 병행하여 분석하는 방식은 안초공 한 가지 사례에만 시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아직 여타 용례들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은 한계라고 생각된다. 다른 용어의 경우까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식인지는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동욱·김경표·이왕기·박명덕, 「조선시대 건축용어 연구-조선후기 영건의례서에 기록된 부재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3호, 1990
2. 김동현, 『한국고건축단장 하』, 통문관, 1977
3. 김연주, 「영건의례류의 차차 표기 어휘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4. 김왕직,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5. 영건의례연구회, 『영건의례』, 동녘, 2010
6. 김재원 편저,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 을유문화사, 1955
7. 김재웅, 「영건의례의 목부재 용어에 관한 문자학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18권, 1호, 2009
8. 김재웅, 이봉수, 「영건의례에 실린 목부재용어의 용례와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 5호, 2008
9. 남광우, 『고어사전』, 교학사, 1999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2』, 단국대학교

- 출판부, 1999
1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4』,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1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5』,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2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7』,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1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11』,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15.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16.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98
 17. 문화재청, 『칠궁의 연혁 및 수리공사보고서』, 2000
 18. 심대섭·주남철, 「인정전 의뢰에 기록된 공포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6호, 1989
 19.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례 건축용어집』, 2007
 20. 완주군, 『완주 화암사 우화루 해체·수리 보고서』, 2011
 21. 이은선, 「한국전통건축 공포부재 용어의 어원-자원에 따른 어의 해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22. 장기인, 『건축용어집』, 영륜사, 1958
 23. 장기인, 『목조』, 보성각, 2005(2)
 24.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2005(1)
 25.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26. 정해권, 「17세기 이후 다포계 건축에서 나타나는 안초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7. 『의인왕후산릉도감의례』
 28. 『인조장릉산릉도감의례』
 29. 『의소묘영건청의례』
 30. 『수은묘영건청의례』
 31. 『경모궁개건도감의례』
 32. 『문희묘영건청등록』
 33. 『화성성역의례』
 34. 『인정전영건도감의례』
 35.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례』
 36. 『창경궁영건도감의례』
 37. 『창덕궁영건도감의례』
 38. 『인정전중수도감의례』
 39. 『중화전영건도감의례』
 40. 『경운궁중건도감의례』
 41.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례 종합정보 (<http://kyujanggak.snu.ac.kr/>)

접수(2018. 6. 12)

수정(1차: 2018. 7. 18)

게재확정(2018. 7. 26)